

3. 서쪽 호반 구역

1 주은노카네 종(樹恩の鐘)

고사카마치와 인연이 있는 광산 기사 쿠에트 네토의 고향인 독일의 라우흐탈에서 주조되었습니다. 높이 12m인 4개의 기둥에 매달린 종은 매일 8시 ~ 18시까지 약 3분간 호반에 부드러운 멜로디를 울려 퍼뜨립니다. 호수에 흐르는 음악은 환경저널리스트인 미시마 아키오 작사, 쓰치다 케이시로 작곡의 『호수는 눈동자처럼』이라는 곡입니다.



2 와이나이 신사

와이나이 사다유키와 그 부인 가쓰를 모시는 신사입니다. 1907년에 가쓰가 사망했을 때, 호반의 사람들이 그녀의 덕을 기리며 '쇼로 신사'를 세운 것이 그 시초입니다. 15년 후인 1922년에 와이나이 사다유키도 세상을 떠나자, 둘을 쇼로 신사에 함께 모시게 됩니다. 1933년에 명칭을 [와이나이 신사]로 개명한 이곳은 호반 사람들의 신앙의 집결지입니다.

3 시로지야마 산

도와다 호수의 서쪽 외륜산으로, 이와키산과 이와테산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멋진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는 오카와타이부터 미소나게 코스, 오카와타이 코스 2 코스 외에 아키타현도 2호 추카이 라인부터 시작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어느 코스이던 편도 약 2시간 반 ~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5 오카와타이

넓은 무로주차장(약 50대)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서쪽 호반의 관광거점. 넓이 31,700㎡의 부지가 정비되어 호반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원이 있습니다. 탁 트인 오카와타이 선착장에서는 나카야마 반도와 오구라 반도를 볼 수 있어, 도와다 호수의 웅대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5월 중순에는 산벚나무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더욱 대채로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6 도와다 프린스호텔

호반 산책로 옆에 위치한 호텔. 라운지에서 바다를 보는 도와다 호수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정원과 더불어 해변감이 가득합니다. 수제 애플파이와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통나무 원목으로 지어진 건물로, 당일치기 숙박이 가능한 넓은 노천온천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추천합니다.



7 나마리아마 선착장

도와다 호텔 쪽에서 산책로로 도보 1분 정도 되는 곳에 나마리아마 선착장이 있습니다. 눈 앞에 펼쳐진 웅대한 경관과 그린터프(녹색 오회암)가 만들어내는 에메랄드그린의 맑은 호수면이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8 도와다 호텔

1939년에 개업. 본관을「아키타 스키노칸(삼나무의 관)」으로도 불리며 국가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타도호쿠(아오모리, 이와테, 아키타) 현의 미야다이쿠 목수들에 의해 뜻을 한 개도 사용하지 않고 지은 흰색 돌린 로비는, 매우 운치가 있어 중후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9 하쿠운테이 전망대 (해발 840m)

편도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산 코스입니다. 발 밑이 불안정하므로 반드시 등산용 장비를 구비하고 현지 가이드와 동행하십시오. 상급자에게 맞는 험한 산길이지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서쪽 호반에선 단연 최고. 도와다 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10 핫카토게 전망대 (해발 631m)

주차장도 넓고 차로 편하게 들를 수 있는 전망대. 해발 631m에서 도와다 호수의 탁 트인 경치를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도와다 호수를 둘러싼 외륜산과 그 후방으로 보이는 핫카토산 남쪽의 연이은 봉우리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도와다 호수에 설치된 라이브용 카메라 영상은 환경성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사카 광산 사무소

메이지 후기부터 다이쇼 전기에 걸쳐 일본 제일의 광산역을 자랑하던 고사카마치의 상징. 현재는 고사카마치의 역사를 전하는 중요한 자료관으로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천연 아키타산나무로 지은 3층 목조건물로, 르네상스풍의 화려한 외관은 꼭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풍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양식이 도처에 새겨져 있어 건축물로서도 흥미롭습니다. 근대화 산업유산에 인정(경제산업 대선)되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0종류 이상의 대여용 드레스가 구비되어 있는「모던 의상실」의 드레스를 입고 관내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사진 예약제) TEL 0186-29-5522

나나타키 폭포

일본의 폭포 100선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유명한 폭포입니다. 낙차 약 60m에서 7단을 거쳐 흘러내리는 이 폭포의 수원은 도와다 호수 외륜산 부근에 있습니다. 산기슭에는 용신을 모시는 나나타키 신사와 물레방앗간이 있어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맞은편에는「고사카 나나타키 휴게소」가 있어 식사하거나 선물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고라쿠안

1910년에 고사카 광산의 복지시설로 건립된 고라쿠안은 현역 목조극장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설 공연과 가부키 대연극 등을 관람할 수 있는 한편, 관내 견학도 가능하며 구로(도우미)의 안내로 보기 드문 무대장치나 대가실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TEL 0186-29-3732

